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꿈’ 꺾일라

정부, AI 산업 전국 분산화
광주시 “계획 철회하라” 반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광주시가 정부의 뜬금 없는 ‘인공지능 산업 전국 분산화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수준인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하루 빨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분산화가 아닌,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도시 한 곳을 집중 육성하는 집적화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디지털 뉴딜 2.0 사업으로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을 마련했다. 광주는 AI 인프라, 충청권은 AI 연구개발, 강원권은 AI데이터 활용, 수도권은 AI민간 주도 글로벌화를 육성하는 등 AI 산업을 전국 분산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광주시는 정부의 이번 계획을 놓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1월 광역자치단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사업 선정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닌 ‘미래산업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전국 유일의 정부 공인 ‘AI 중심도시’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돕는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광주시는 수조원대의 SOC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유일하게 사업비 4116억원 규모의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 정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시는 예타면제 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첨단 3지구(4만7256㎡) 내에 데이터센터 등 AI 핵심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인공지능 관련 산업융합 R&D, 창업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한 끝에 인공지능 관련 100개 업체 유치하는 성과 등을 내고 있다.

광주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광주 주도로 AI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전국화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분산화 정책이 현실화하면 광주의 AI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수도권 중심 개발 논리에 밀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00억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당시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사업으로 제안한 것으로, 광주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당시 평가위원들이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정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는 AI 분야 후발 주자로 집적화를 통해 앞선 도시, 국가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지금 일어 서지도 못하는 산업을 7~8개로 쪼개면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며 “코끼리가 크다고 2마리로 나눌 수 있느냐. 오히려 죽어버린다. 광주만 산업을 육성하느냐는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권역별로 분산하면 제대로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앞서 여름휴가 중이던 지난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AI 산업 전국 분산화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100일 앞... 공통과목 고득점 노려야 ▶7면

굿모닝 예방 - 스타와 팬덤 문화 ▶18·19면

KIA 브룩스 퇴출, 전자담배 대마성분 검출 ▶22면

전두환, 사죄는 끝내 없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가 변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법정 항소심 재판 참석... 꾸벅꾸벅 졸다 20분만에 퇴정 발포명령 등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90세 노인 전두환씨가 변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 선고 후 광주 법원을 찾은 이후 8개월여만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졌지만 전씨는 이후 재판 불출석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정에 설 날이 얼마남지 않아 보였지만 반성도,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6면>

전씨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 사자명

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처음 참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출발, 낮 12시 40분께 광주지방법원 후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차방에서 내려 법원 계단을 오를 때 뿐 아니라 법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마다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를 상대로 성명·연령·등록기준지(본적)·주거·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의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인 전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가 뒤늦게라도 출석하니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는 모양새다.

전씨는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착용하고 질문을 받았으나 상당 부분을 알아듣지 못했고, 재판 시작 20여분만에 호흡 곤란 등을 이유로 퇴장하기도 했다. 재판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전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가석방

‘국정농단’ 재수감 207일 만 부당합병·프로포폴 재판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근혜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



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을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EQ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1. 휘발 엔진 대비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화정동)
2. 4M 하이브리드 엔진 (04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로 516(수완동)
3. 소형 SUV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흥대로 603(남광동) 20(수완동)
4. SUV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로 520(수완동)

장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4M 하이브리드 연비(복합) 10.1km/kWh | 4.1 | 도시: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6,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시험 도로 상의,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